

윤성빈 1위…평창 자신감 UP



18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열린 2017~2018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2차 대회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윤성빈이 질주하고 있다. 윤성빈은 이날 '스켈레톤 황제'인 마르틴스 두쿠르스(라트비아)를 제치고 개인 통산 세 번째 월드컵 금메달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IBSF 월드컵 남자 스켈레톤

1·2차 합계 1분37초32…트랙 신기록까지

“나를 존경한다고요? 미쳤네요.”
‘스켈레톤 황제’ 마르틴스 두쿠르스(33·라트비아)는 2016~2017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8차 월드컵에 참가하기 위해 올해 3월 한국을 찾았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한국 스켈레톤의 ‘간판’ 윤성빈(23)이 자신을 존경한다는 얘기에 민망한 듯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사실 두쿠르스는 윤성빈뿐만 아니라 스켈레톤에 몸담은 전 세계 모든 선수가 우러러보는 존재다.

그는 2009~2010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8시즌 연속 세계랭킹 1위를 지켰다. 월드컵은 총 65번 치렀고, 이 중에서 무려 47번이나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런 두쿠르스가 대회에서 오가며 윤성빈을 만나면 다소 찡찡하게 대한다고 한다. 윤성빈은 “난 두쿠르스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선수는 나한테 인사도 안 해준다”고 섭섭함을 토로한다.

두쿠르스가 윤성빈을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19일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윤성빈은 이날 미국 유타 주 파크시티에

‘우상’ 두쿠르스 0.63초차 제압하며 금메달

서 열린 2017~2018시즌 IBSF 월드컵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37초32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두쿠르스는 윤성빈보다 0.63초 뒤진 기록으로 은메달에 그쳤다. 윤성빈이 월드컵에서 두쿠르스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윤성빈의 경기는 완벽 그 자체였다. 그는 1차 시기 48초82, 2차 시기 48초50으로 모두 1위에 올랐다. 스타트 기록은 각각 4초51, 4초52로 역시 모두 1위다. 특히 윤성빈이 2차 시기에서 기록한 48초50은 트랙 신기록이다.

썰매는 흙 이점이 특히 큰 종목이다. 대회가 열리는 트랙에서 수없이 많은 반복 훈련을 해봐 눈을 감고도 탈 수 있을 경지에 오른 개최국 선수를 당해내기 쉽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두쿠르스는 2010년 밴쿠버,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모두 개

최국 선수한테 밀려 은메달에 그쳤다. 30대 중반에 출전하는 평창올림픽은 두쿠르스가 ‘올림픽 금메달’의 한을 풀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두쿠르스가 윤성빈의 성장을 반길 리 없다.

윤성빈은 고교 3학년이던 2012년만 해도 엘리트 스포츠는 접한 적 없는 보통 학생이었다. 그러나 운동 신경 하나는 탁월했다. 키가 178cm인 윤성빈은 제자리 점프로 농구 골대를 잡을 만큼 순발력이 뛰어났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체육 선생님이 스켈레톤을 해보라고 권했다. 서울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이사였던 이 선생님의 권유가 윤성빈의 인생은 물론, 한국 스켈레톤의 역사까지 바꿔놓았다.

윤성빈은 스무 살의 나이에 출전한 소치 올림픽에서 16위에 오르며 큰 가능성을 보였다. 이후 스켈레톤 선수로 타고난 재능에 불타는 승리욕이 더해져 두쿠르스에 이은 세계 스켈레톤 2인자로 발돋움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열린 2017~2018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월드컵 2차 대회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윤성빈(가운데)이 마르틴스 두쿠르스(라트비아·은메달·오른쪽), 악셀 웅크(독일·동메달)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이 없으면 평창올림픽 스켈레톤 경기는 윤성빈과 두쿠르스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성빈이 ‘올림픽 금메달’

의 꿈을 실현할 경우 두쿠르스 시대는 저물고 윤성빈 시대가 열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연합뉴스



이상화 빙속 500m 2차銅

‘빙속여제’ 이상화(스포츠포토)가 월드컵 2차 대회 여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자존심을 회복했다.

이상화는 지난 18일 노르웨이 스타방에르에서 열린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2차 대회 500m 디비전A(1부리그) 2차 레이스에서 37초 95를 기록해 일본 고다이라 나옴(37초 07), 러시아 안젤리나 골리코바(37초 85)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그는 10초 아웃코스에서 ‘라이벌’ 일본 고다이라 나옴과 레이스를 펼쳤다. 그는 첫 100m를 10초 44초에 끊어 고다이라(10초 33)보다 0.11초가 밀렸다.

이후 남은 400m에서도 27초 5를 기록해 26초 7을 기록한 고다이라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

고다이라의 벽은 넘지 못했지만, 다시 페이스를 찾았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이상화는 하루 전에 열린 500m 1차 레이스에서 38초 08의 기록으로 7위에 머물렀다. 그는 단 하루 만에 다시 37초대 기록을 찍으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연합뉴스

최민정 쇼트트랙 1천m 金

월드컵 개인 5관왕 ‘평창 맑음’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최민정(성남시청)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마지막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에서 1,0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네 차례의 월드컵 개인종목에서 모두 5개의 금메달을 수확하며 평창올림픽에서의 선전 기대감을 높였다.

최민정은 19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마지막 날 1,000m 결승에서 1분32초402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날 세번째로 출발한 최민정은 두번째 바퀴에서 가볍게 1위로 올라선 후 캐나다 킵 부탱에 한 차례 역전을 허용했다 다시 선두를 빼앗은 후 줄곧 선두를 지켰다.

최민정은 전날 1,500m 금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 2관왕이 되는 등 네 차례의 월드컵 개인 종목에 걸린 금메달 12개 가운데 5개를 휩쓸었다.

이날 준결승에서 킵 부탱(캐나다)에 이어 조 2위로 결승에 진출한 심석희는 결승 마지막 바퀴까지 최민정에 이어 2위로 달리다 영국 엘리스 크리스티와 충돌해 넘어지며 안타깝게 4위로 끝났다. 크리스티는 실격됐다.

남자 1,000m 결승에서는 황대헌(부흥고)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대헌도 전날 1,500m 은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 두 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양현종의 걸그룹 댄스 보러 오세요



내달 1일 ‘V11 팬 페스트’…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

선수단 전원·팬 6000명 ‘동행’…오늘 오후 3시 티켓 신청

‘통합 MVP’ 양현종이 우승을 기념해 팬들 앞에서 ‘걸그룹 댄스’ 선보인다. KIA 타이거즈가 오는 12월 1일 오후 6시부터 광주여자대학교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선수단 전원과 팬 6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KIA타이거즈 V11 팬 페스트’를 연다.

이번 행사는 2017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일궈낸 KIA선수단이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겨울 축제’다.

이날 KIA 선수단은 팬들과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 숨겨진 끼를 마음껏 발산해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할 계획이다.

선수단의 우승 공약이었던 ‘걸그룹

댄스’도 이날 공개된다. 핵심 멤버는 ‘통합 MVP’ 양현종이다.

양현종은 주장 김주찬과 시즌 시작에 앞서 진행된 미디어 데이 행사에 참여해 “올해 우승하면 11번째 우승이다. 우승하면 11명이 걸그룹 댄스를 추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었다.

그리고 정규시즌 20승과 한국시리즈 완봉승과 세이브 등으로 통합우승의 주역이 된 양현종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동료들과 무대에 오른다.

팬 페스트는 KIA타이거즈 사진 전시회, 팬 사인회, 우승 트로피 포토존 운영 등 사전 행사로 시작된다. 팬 사인회 참가권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체육관 2층 중앙매표소에서 선착순 300명에게

배부한다.

공식행사는 선수단과 우승 트로피 입장, 환영사, 하이라이트 상영, 응원단 응원전, 호랑이 가족 한마당, 축하 공연으로 진행된다.

행사의 백미가 될 ‘호랑이 가족 한마당’은 토크쇼와 장기자랑,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채워진다. 많은 관심을 끌었던 ‘걸그룹 댄스’도 공개된다.

한편 행사 입장 티켓 신청은 티켓링크(http://www.ticketlink.co.kr)를 통해 이뤄진다. 참석 인원은 선착순 6000명이며, 접수는 20일 오후 3시에 시작된다. 티켓은 예매 시 기입한 주소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



광주 서석초 추계 초등학교 야구 우승

결승서 수창초 4-2로 꺾어

광주 서석초가 2017 추계 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서석초는 최근 광주 분량구장에서 열린 추계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3연승을 달리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올 시즌 마지막 대회인 이번 대회는 작년 우승팀 수창초를 포함한 7개 야구팀이 참가해 리그전으로 실력을 겨뤘다. 서석초는 첫날 수창초와의 경기에서 4-6으로 졌지만 서립초를 11-1로 이기면서 A조 2위로 결승을 치렀다.

준결승전에서 화정초를 10-8로 꺾은 서석초는 결승에서는 수창초를 4-2로 이기면서 우승 고지를 밟았다.

◇추계 초등학교 시상내역
▲최우수선수상 : 고도영(서석초) ▲우수투수상 : 김훈민(서석초) ▲타격상 : 양승진(12타수 8안타, 타율 0.667·수창초) ▲최다도루상 : 서영준(5개·화정초) ▲최다타점상 : 서영준(8타점·화정초) ▲감독상 : 손시우(수창초) ▲미기상 : 김민재(수창초) ▲감독상 : 양윤희(서석초) ▲지도상 : 강주오(서석초 야구부장)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